

▶ 함평천지전통시장 호우 피해복구 현장

“생각보다 피해 심각… 하루 빨리 일상 회복되기를”

여전한 수마 흔적…가구·살림살이들 진흙 범벅
관·군·경 온정 손길…토사·쓰레기 제거 등 합심

“막상 치워보니 생각보다 피해가 심각합니다.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최근 전남지역을 휩쓴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8일 함평군 함평읍 함평천지전통시장.

지난 3일 이곳에는 290여mm의 괴물 폭우가 쏟아지면서 41개 점포 전체와 인근 골목형 상점가 27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시장 인근은 비가 내린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수마가 활취고 간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는 진흙으로 뒤덮인 부서진 가구와 가전제품 등 각종 살림살이가 마구잡이로 쌓여 있었다. 물에 젖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제품과 어느 곳에서든 밀려온 지 모르는 쓰레기 더미도 상당했다.

골목에는 성인 남성 키만큼 쌓인 쓰레기와 폐자재들을 포크레인이 덤프트럭에 싣기 바빴고, 적재함을 가득 채운 트럭들이 수시로 오가는 모습도 보였다.

높은 습기와 뜨거운 햇볕 때문인지 상인

들의 잔뜩 쪼그린 인상에서 착잡함이 묻어났다. 땀을 타고 턱 끝을 향해 흐르는 땀줄기가 망연자실한 심정을 보여주는 듯했다.

마른 아스팔트 위로 주민들의 무거운 걸음이 지나갈 때마다 진흙이 묻은 발자취가 잔뜩하게 남았다

식당 앞에는 물에 젖어 햇볕에 말리기 위한 식탁과 의자, 식기구 등이 놓여 있었다. 상인들은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진흙을 닦아내기 위해 바닥을 연신 쓸고 씻어냈다. 짧은 뉘드리를 주고 받은 무거운 걸음을 옮기는 상인들도 눈에 띄었다.

복구 작업은 말 그대로 ‘사람의 손’에 의존해야 하는 고된 일이었다.

30여년 간 시장을 지키며 잡화점을 운영 중인 정순례씨(74·여)는 침수된 물품을 마른 수건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는 “30년 가까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물품의 대부분을 버리게 됐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많은 분들이 나서준 덕분에 잘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8일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상인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이어 “이번 주에도 비가 온다고 하니 한숨이 앞선다”면서 “제발 이번에는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한편 함평군은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의 복구와 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함평군청, 광주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호우 피해 지원 현장상황반을 운영했다.

또 전남경찰청은 기동대 경력을 투입해

본 함평천지전통시장 및 대동면 일대에 긴급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송강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직원들도 수해 복구에 손을 넣었다. 이들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을 찾아 폐가물 수거와 방역 등 수해를 입

은 상가와 농가를 정비하는데 힘을 보탰다.

이 외에도 육군 제8332부대는 장갑과 생수, 수건 등 물품을 지원하고 천지전통시장 상가와 민가에서 가재 정리를 도왔다. 윤용성 기자 yot404@gwangnam.co.kr

CHAORUM Planning & Development Co., Ltd.

(유) 차오름피앤디

A1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3, 2층
A2 광주광역시 북구 침단면신로 91번길 44, 3층 301호
Tel. 062-710-5758 Fax. 062-710-5759
E-mail. corpnd@naver.com

- 농어촌지역개발 타당성 분석, 예비계획, 기본계획, 지역역량강화
- 측량업 공공측량,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드론측량, GIS
- 지하수관련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이용개발시공
- 시설물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 종합디자인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리플렛·포장패키지·스토리북·사진첩·조감도 제작
- 엔지니어링사업 토목설계(도로 및 공항·상하수도·토질 및 지질·구조), 도시계획(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관리

영암군, ‘일본군 위안부 징발 소문’ 실행 첫 확인

유언비어 유포 혐의·주민 4명 처벌…은폐·탄압 실태 증명

일제강점기 시절, 영암군민들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 제도를 퍼트렸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영암군은 최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관련 판결문 2건을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193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지역 주민들이 처벌받은 사실을 담고 있다.

군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정부 기록보존소)이 소장하고 있던 원본 판결문과 번역본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1938년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에 거주하던 있던 영마동씨(송명심씨 집(덕진면 장선리)에서 “황군의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올해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며칠 후 송명심씨는 마

을 구장(마을 대표)이 부녀자 수를 방문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기의 딸(당시 15세)도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부녀자 인원조사를 지시한 이를 찾아가 “영마동에게 황군의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고 들었는데 구장의 조사도 이를 위한 것이냐? 모두 위안부로 보내진다는데 사실인가?”라고 항의했다.

이러한 항의가 유언비어 유포라는 혐의로 이어져 영마동·송명심씨는 체포됐다. 이후 이들은 육군형법위반으로 각각 금고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는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문을 퍼뜨린 주민들에게 형사 처벌을 가한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행위는 “황군의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올해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며칠 후 송명심씨는 마

암군 도포면 성산리)에 거주하는 이운선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이운선씨는 “팔을 든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이며 나주 방면에서는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이 발언 역시 유언비어 유포로 간주해 육군형법위반으로 이운선씨는 금고 6월 집행유예 3년, 한만옥씨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군은 이번에 발굴된 4인을 정부에 알려 전국적인 사례를 추가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인물들의 후손을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송명심씨의 유족에게는 해당 사실을 알렸다.

우승희 군수는 직접 유족을 찾아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장에요소를 얹어기 위해 유언비어 죄로 형사 처벌까지 했다. 당시 억압과 통제의 시대적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 역사와 진실을 후세에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청구 기자 hck1342@

국립목포대, 국립대학육성사업 ‘S등급’ 쾌거

사업비 102억 확보…다층적 학위 통합대학 정착 앞장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가 교육부 주관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 평가에서 교육혁신분야 ‘S등급’을 획득하면서 총 10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글로벌대학 연차평가에서 전국 유일의 S등급을 받았던 목포대는 이로써 지역 혁신과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S등급은 교육혁신 성과 및 계획의 우수성, 유연한 학사운영, 학생 지원·관

리체계,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행·재정적 지원체계 등 다양한 평가요소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목포대는 전남도립대와외의 통합대학 출범에 앞서 2년제 전문대와외의 연계, 유연한 학사제도 도입, 전공 자율선택형 확대, 학과 통폐합 추진 등 다층적 학위 통합대학 정착에 앞장서 왔다.

특히 국내 최초로 2·4년제 다층학사제를 도입해 전문학사 2년과 학사 4년 과정을 연계한 혁신적 학제 운영을 실현했으

며, 이를 통해 전문학과와 학사 간 경계를 허무는 학생 맞춤형 교육체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또한 학생 전주기 지원을 위한 ‘나침반 멘토제’(학생선택 교수멘토, 선배멘토, 전문가 취업멘토 등) 운영과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한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여네량 개발 지원체계가 큰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목포대는 실무·사회문제해결형 PBL, 1교수 1명품 강의제도, 하이브리드 스마트 교수법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수업과 교수역량 혁신에도 앞장서고, 행정기능 역시 단일 통합행정실로 효율화에 대학 운영의 선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